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포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설날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예 배 순 서>

목도	다함께
성시 시편 23편 1-6절	인도자
찬송 301장(통일 460장)	다함께
기도	(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창세기 45:1~15	인도자
메시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인도자
찬송 384장(통일 434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12 전하소서 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4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 45:1~15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고난도, 현재의 모든 것도, 그리고 미래의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제일 원인이 되시며 개인과 가정, 민족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주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악의 문제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선한 일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순간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 되신다거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파는 형들의 악행을 묵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악과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까지도 제약을 가하시며 악의 범위를 한하십니다.(욥1:12) 요셉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도움을 베풀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8절)

2.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청년 요셉에게 계속된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 음탕한 보디발 부인에 의한 유혹적인 상황,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등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자체는 분명 악하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악한 것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날들을 나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함이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시119:67)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 까닭에 그의 가족과 민족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인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의인 주변에 있는 생명까지도 구하시므로(5절) 다른 사람도 그 선한 사역의 혜택을 누립니다.

3. 용서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를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선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하나님...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도 악도, 선도 다스리시며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개인의 삶도, 역사도, 우주도 운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 까닭에 그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이 복의 기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권사회 연합수련회

2월 21일 (수) 오후 3시, 웨스트민스터홀

2월 21일 (수) 오후 3시에 살롬 권사회, 권사회 연합 권사 수련회를 갖는다.

오후 3시부터 찬양으로 준비하여 3시 20분 경건회, 오후 4시부터 기도회 및 월례회를 가지고 5시에 강사로 김의창 협동목사를 모시고 특강을 갖는다.

주제는 '시련 가운데 평강' (빌 3:17~4:9) 이다. 기도의 어머니로 평소에도 교회와 국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본을 보이는 권사회가 연합수련회를 통해 더욱 은혜 받기 바란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도 바란다.

2018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사랑부 오늘 오전 10:20~오후 1:15, 사랑부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월 25일(주)	서울교회	카다쉬 놀이터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3월 4일(주)			
사랑부	2월 11일(주)	서울교회	모세의 기도	심우진 목사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 초대

모세의 기도



이강인 집사 (사랑부 부장)

사랑부가 오늘 교회에서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지난 한 해 교사들의 정성어린 헌신으로 사랑부가 안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랑부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모세의 기도' 입니다. 말씀을 주면 주는데로 흡수하는 사랑부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또 한 번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발달장애인에 남다른 비전을 가지셨던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서울교회 설립 직후인 1992년 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인 사랑부를 개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몽학교, 나사렛재활원 등의 많은 학생들이 사랑부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약한 자에게 유달리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던 것처럼 서울교회 사랑부는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우리 학생들의 신앙적 성장이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들은 천천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2월 11일	주일	레위기 26:3~27:34		사사기 19~21 룻기 1~4	
2월 12일	월	민수기 1~2		사무엘상 1~7	
2월 13일	화	민수기 3:1~4:20		사무엘상 8~14	
2월 14일	수	민수기 4:21~6:27		사무엘상 15~19	
2월 15일	목	민수기 7		사무엘상 20~24	
2월 16일	금	민수기 8~10		사무엘상 25~31	
2월 17일	토	민수기 11~13		사무엘하 1~6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태삼/조속자 김은숙 황선희 한은미 김동진1/박진주 윤요섭/안재희 정수길 안선광/고영숙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비전2020운동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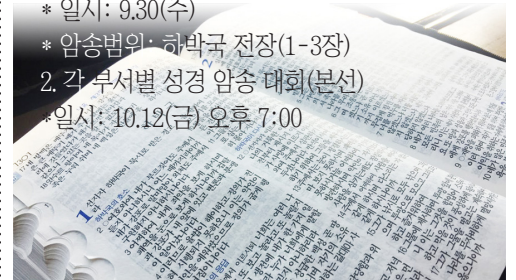
- 12교구 : 송명원(1) 정은지(1/2) 정은채(1/2)
- 16교구 : 임송자(1) 조영자(1) (다음 주 계속)

2018 성경 암송 대회

범위 : 하박국 전장
예선 : 9월 30일(주일)
본선 : 10월 12일(금)

2018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일시: 9.30(주)
- * 암송범위: 하박국 전장(1-3장)
2.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일시: 10.12(금) 오후 7:00



교회 주차장 사용 안내 수요예배, 찬양예배 후 신속한 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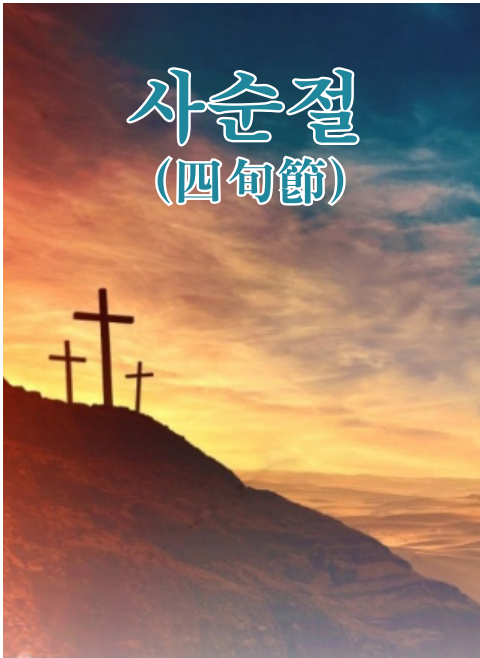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위원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주차하고 있다.

다만 수요예배와 주일 찬양예배가 끝난 후 주차장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먼저 지상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 (2부예배 후, 504호)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순절 (四旬節)

올해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2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 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 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1일입니다.



사순절 묵상

주여 내나이까?

이중윤 원로목사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주여 내나이까?” 반문한다.
 오늘 이 사회가
 이토록 병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
 우리 가운데 가rot 유다는 있다.
 “내나이까?”
 “네가 말했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다는
 나지 않았던면 좋았을 인간이다.
 부패한 양심과
 거짓말로 위선의 탈을 쓰고
 “내나이까?” 하지 말고
 “주여 나입니다”
 진정 없으셨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감춰 보았자 곧 창자까지
 쏟아놓고 말 인간이거늘
 언제까지
 “내나이까?”
 발뺌만 할 것인가.
 주여,
 정직한 영을 주사
 참말만 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갖도록

올 초 서울교회 교육전도사로 부름을 받은 최승원 전도사는 중·고등부 지도를 맡고 있다. 최승원 전도사를 중심으로 중·고등부가 올 한 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서울교회에 와서 너무 좋았던 풍경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 주는 것이 부모 세대의 책임임을 더 무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승원 전도사와 송혜련 사모

그동안 교회학교의 취학부서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주기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을 고민하고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청년이 되어서도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았고 저 또한 그렇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은 10년 뒤 서울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매일 바쁜 학업 일정을 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주일 아침에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10년뒤 우리 서울교회는 우리 아이들에 의해 믿음의 유산들이 잘 이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우리 서울교회의 10년 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알아감에 즐거움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교회가 그동안 잘 가꾸어 왔던 귀한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 이것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극심한 가뭄, 엘니뇨 현상으로 11월 우기철에도 잠시 몇 차례 비를 퍼 붓고 지금까지 비가 오질 않습니다. 큰 장마가 와도 걱정, 가뭄이 와도 걱정입니다. 주 이들의 제한 급수로 인하여 물이 부족합니다.

오정녀 선교사는 한번도 걸리지 않던 몸살감기로 10일째 고생하였습니다. 온 뼈마디와 살이 아프고 열도 오르고 하여 말라리아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말라리아는 아니라고 합니다.

1. 선교보고

- 매달 예세기학교 305명 급식과 물 한 차씩 공급 했으며 9월4일, 아마니 음악학교 11곳, 리더쉽 학교 200여명 개학, 아마니 장학금 90명 지급했습니다. 또한 10월7일 아마니콰이어 특별공연(고아원생들을 위한 10곳 초청 오페라 데이 행사 찬조출연)을 했고 ABRSM(국제인증능력 음악시험) 이론시험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10월20일에는 미국 WON FOUNDATION 임원 일행 3명이 본 사역지를 방문하여 1,750여명 학용품 및 간식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케냐 Citizen TV 성탄행사 출연, 녹화해서 12월 25일 11시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12월4일 아마니 송년음악회를 열었

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한 치안 상황 때문에 2018년1월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리더쉽 교육 상황 : 지난 1월에 입학한 신입생이 24명에서 9월(3학기)에는 1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등 하교를 할 수 없는 학생, 한번도 배워보지 못한 우리의 교육이 수준 차로 따라오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이 중도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몇 명은 가정형편으로 노동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빈민지역 출신이 많은 것도 큰 이유이지만. 기본적인 교육 즉 초등 음악교육의 부재 및 시청각 교육이 부족한 케냐의 실정이 목소리는 좋을지라도 이론과 함께 악기훈련과 같은 인내를 요구하는 훈련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자질의 결여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더 몇 명이 중도 탈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2. 찬양선교사 훈련학교(Leadership Conservatory):

식당 겸 강의실이 한 칸, 작은 사무실과 부엌이 한 칸, 주 3일 온종일 수업하는 대학과정 청년들이 30명, 청소년 합창단 25명씩 두 팀, 주 140명이 사용하기에는 교육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찬양신학교 건축부지 구입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동분서주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위치 또한 넓고 교육 공간 역시 충분히 확보할 수는 있으나 나이로비에서 3시간 반 거리 나누끼는 어려운 빈민가 출신이 주축을 이루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형편이 어려워 통학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사랑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아프리카 찬양지도자 양성교육기관(찬양신학교)건립을 위한 부족한 건축비 후원을 위하여
- 모든 아마니 음악학교에 속해 있는 지체들과 후원자에게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케냐 김낙형 오정녀 선교사 올림

동정

- 득녀 : 최승원 교육전도사 송혜련 사모 2월 5일(월)
- 금주의 식사 : 이명화 목사 전광혜 선교사 가정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에세키초등학교 1회 8학년 졸업예배 축복의 시간



아마니 한국음반



로날드선교사 파송식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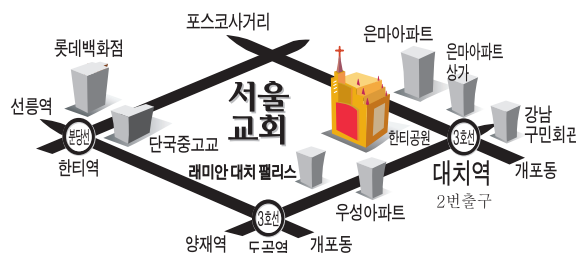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2. 설 연휴 기간 가족들을 만나러 다녀오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일가친척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향상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세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